

‘청렴도 1등급’ 향해 고삐 당긴다 불법찬조금·갑질 등 전방위 감시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발표
운동부 전담조사팀 신설해 대응
사립학교 재정 사이버감사 확대
청렴마일리지·직접진단도 추진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이 신설된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도 강화하는 등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해 1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에서 ▲청렴 추진체계 확립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과 협력으로 여는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공익제보 및 보호체계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총 21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3년 연속 부패경험률이 상승한 운동부 운영과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저조가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렴 오행 프로젝트’를 통해 운동부, 방과후 학교, 현장학습, 계약관리, 공사관리 등 교육부문 5대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가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러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부패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분야에선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도 예고했다.

청렴정책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감이 직접 청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익공직자 청렴 진단과 인사 연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리더십 기반의 청렴 행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 라이브’, 청렴 서한문 발송, 공직자 청렴교육, 운동부 청렴

솔루션 연구 등 시민과 교육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중심 청렴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서울교육의 생존 조건”이라며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갑질 문화를 뿌리 뽑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 달성

서울시교육청 3년 연속 선두
전년대비 구매금액 124억 증가
구매율 법정기준 4배 초과 수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 연속 전국 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164억원을 기록하며 구매율도 법정 기준인 1%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8%로 증가한 후, 지난해 544여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24여억원 증가한 수치로, 법정 기준(0.8%)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한, 전년보다 46억원 추가 구매해 총 164억원을 집행하며, 2016년 이후 최고 구매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위해 공동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성과상여금 연계, 구매품목 다변화 등의 전략을 펼쳐왔다.

공동 성과지표 운영을 통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매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성과 체계를 도입해 책임감을 높였고, 성과상여금 연계와 관련해서는 학교 성과상여금에 법정구매율 충족 항목을 신설해 각 학교의 자

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구매 품목의 다변화도 추진해 복사용지 등 저가 품목에 집중됐던 구매 품목을 다양화해 5억원 이상 구매 품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과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확대의 간접 기여는 물론,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 생태계를 조성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찰 80주년, 경찰관 복장개선 연구 착수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연구팀
‘밸런스 디자인’ 실행계획 발표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연구팀이 창경 80주년 기념 경찰복제 개선 연구에 나선다. 16일 국민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관 복장 개선 연구 착수 보고회

에서 의상디자인학과 연구팀은 외근·기동 경찰복장 등 각 책무에 맞는 기능성을 확보하고, 복장 요소간 부조화를 해소하는 ‘밸런스 디자인(Balance Design)’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복제개선 연구는 김승현·박주희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와 대학원 박사과정의 계한희, 조은혜 디자

이너가 공동 연구를 맡았다.

연구를 맡은 김승현 의상디자인학과 교수는 “신기술이 적용된 소재와 공법으로 활동과 편의성을 높이고, 복제와 장구들의 조화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부문별 경찰 복장들이 고유의 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이미지를 갖추면, 국민에 헌신하는 경찰 책임을 완수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우리말의 힘, 퀴즈로 배워요”

세종대왕 탄신 628돌 기념 행사
‘우리말 겨루기 대회’ 참가자 모집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국어문화원이 제628돌 세종대왕 탄신 날을 기념해 ‘우리말 겨루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국어교육과 우리말 연구회, 인천 우리말 가꿈이와 협력해 오는 5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는 세종대왕 탄신 날을 널리 알리고, 우리말을 쉽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며 친목을 다지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월전홀에서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족 또는 친구와 2~3명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문제는 맞춤법, 순우리말, 줄임말, 일본어 투 용어, 띄어쓰기, 사투리, 속담, 외래어와 순화어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말이나 헷갈리는 표현, 순화가 필요한 용어 등을 퀴즈 형식으로 풀며 자연스럽게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으뜸상(문화상품권 30만원), 버금상(문화상품권 20만원), 슬기상(문화상품권 10만원), 나래상(문화상품권 5만원, 2모듬)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바우라움과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훈) 및 RISE사업단은 교육기업 미래엔의 펫케어 전문 자회사 바우라움과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춰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장 중심 실습을 위한 인프라 및 전문인력 상호 지원 ▲교육생 실습 연계 등 영역에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삼육대는 커리큘럼 구성, 교육생 선발과 평가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교육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바우라움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 및 실습지도자를 투입하고, 실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훈 산학협력단장 겸 RISE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RISE 사업



정훈 삼육대 산학협력단장 겸 RISE사업단장(왼쪽)과 김원영 바우라움 대표가 양 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의 목표와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산업 전반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현진 기자

“시민과 함께한 시간, 미래로의 도약”

고양시의회, 개원 34주년 기념식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15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개원 3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과 함께해온 의정의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고양시의회 의원들과 이동한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집행부 간부,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양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의회 홍보영상 상영, 의장 기념사, 시장 및 의정동우회 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운남 의장은 기념사에서 “고양특례시의회가 34년간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원동력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역대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4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